



해외 닭고기 시장동향 및 전망



박진호 대표이사
(주)메리트무역

“11월 시장에 대한 전망이 좋지 않다”

브라질 날개(wings) 수입을 위해 강매되었던 정육(Bone Less Leg Meat)의 가격이 급격히 나 빠지고 있고, 필자가 20여개의 업체와 전화통화 혹은 회의를 가지면서 모든 회사들이 브라질 정 육재고가 있다는 것에 놀랐다. 시장이란 물건을 사는 주체와 파는 주체가 있기 마련인데, 현재 정육시장은 사는 주체는 없고 판매하고자 하는 주체만 있어 많은 변동이 예측된다. 브라질 정육의 품질은 실로 대단하다. 국내산 정육과 비교해서 큰 손상이 없을 만큼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고, 브라질 생산업체들이 한국시장을 겨냥해 보다 좋은 품질로 시장공략을 할 것이다.

문제는 브라질 정육으로 인해서 국내산 제품의 시장점유율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미국산 가공육의 경우 저가의 저 품질로써 국내산 제품들과 차별화가 이루어졌으나, 현재 브라질산의 가공육은 국산대비 저가이면서 품질이 뛰어나 국내 계육시장의 흐름을 바꿔 놓고 있는 듯하다.

이에 11월 미국산 오퍼시세 또한 약보합세 이하로 움직이면서 국내 재고를 갖고 있는 업체들

의 해법이 마땅치 않다. 10월까지 900불대를 형성했던 왕장각(Jumbo Whole Legs)이 11월 오퍼가격은 800불대 이하로 형성되고 있으며 8월과 비교해서 약 20% 정도 하락한 모습이다.

미국에서 저병원성 AI발생이 잦아짐에 따라 수출 제한국이 늘어나면서 재고 소진을 위해 고민하는 모습이 역력하고 인도네시아에서는 열흘에 한 명씩 H5N1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인체감염 의심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정밀검사 중인 사건도 몇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것이 공식 발표된다면 국내시장에도 적지 않는 파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겨울이 다가오면서 계육업계는 올해도 역시 AI로부터 자유스럽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오퍼가격이 약보합세를 이루고 있다. 왕장각(Jumbo Whole Legs)의 경우 근래 부산항에 도착하는 오퍼가격은 900~1,000불이었으나, 11월 선적분으로 계약되는 가격은 750~850불

대를 형성하고 있다. 12월 또한, 미국입장에서 호재로 작용할 요인이 적어서 당분간 가격흐름은 약보합세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브라질

사실 한국에서 판매되는 가격과 국제가격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날개(Wings)의 경우 전 세계에서 제일 비싸게 판매되는 국가는 아마도 한국일 것이다. 절대적으로 수입이 필요한 날개수입을 위해 한국의 수입업체들은 제일 비싼 가격(Highest Price)으로 구매하고 있으며, 더 많은 물량을 계약하기 위해서 정육(Bone Less Leg Meat)을 수입하고 있다. 수입업체는 날개의 경우 계약된 물량과 시세차이로 컨테이너당 적게는 1,000만원에서 많게는 2,500만원까지 수익을 남겼고, 재고로 갖고 있는 정육만 잘 판매한다면 큰 이익을 볼 것이다.

중국

중국산 가금육은 완전히 안정되어 월 1,200~1,400톤 정도가 수입되고 있다. 지속적인 품질관리로 인해서 한국시장에 완전히 정착했다. 초기에는 맛과 품질로 인해서 많은 수입업체들이 당황하기도 했으나, 일본으로 수출되는 품질 좋은 제품의 레시피와 흡사한 상품을 만들어 한국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일본으로 수출되는 닭고기 가공제품은 전 세계적으로 품질과 맛이 일품이어서 이를 효과적으로 벤치마킹(?)되어진 제품들은 평판이 좋을 수밖에 없다. 10월 달에도

3~4개의 업체들이 중국을 방문한 것 같다.

덴마크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이래 꾸준한 검역과 예방활동을 통해 OIE로부터 청정국 승인을 받았고, 조만간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곧 교역이 재개될 것이다.

덴마크에는 총 5개의 수출 공장이 있으며, Rose Poultry가 3개의 공장을 소유하고 있고, Danpo가 2개의 공장을 갖고 있다. 인구 500만 명의 소규모 국가이면서 가금육 시설도 매우 제한적이어서 검역예방이 수월하며, 철저한 검역검사를 통해서 AI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것 같다.

결론

일본의 메이저 계육업체의 지인들과 이야기해보면 한국은 일본의 20년 전 과거시황과 비슷하다고 한다. 가격의 기복이 너무 심하고 폭등과 폭락을 쉽지 않게 경험한다. 시장에서 경쟁을 한다면 것은 매우 자연스러우면서 건전한 것이다.

그러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이른바 ‘박스같이’를 한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같은 업계에 있으면서 이러한 모습을 종종 보고 있다. 부디 본인들이 알아서 바람직한 결정들을 했으면 한다.

차라리 눈에 띄지 말았으면 한다. 만일 이것이 매스컴에 보도가 된다면 그나마 있는 소비도 침체될 것이기에 마음이 불안하다. 